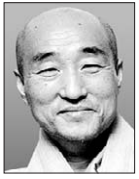


일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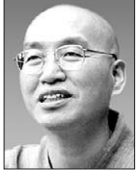
노인의날 행사 및 가을 음악회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이사장 성운 스님은 10월 4일 '제 11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파발 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02)385-1351



논산현륜소서 생명나눔 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9월 15일 논산현륜소서 훈민생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조철모세 포기증 희망지등락 캠페인을 개최했다.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월경사 주지 정년 스님은 10월 5~7일 '공생과 회망'을 주제로 제4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개최한다.(033)332-6661



장수죽림정사 성역화불사 낙성 장수 죽림정사 주지 법륜 스님은 10월 9일 오전 11시 죽림정사에서 성역화중합불사 낙성 회향법회를 봉행한다.(063)353-0108



16회 행원문화상 시상 행원문화재단 주영은 이사장은 9월 14일 서울 송파구에서 제16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작곡가 이종만씨와 이 미령 동국여경원역 역경위원회 이사장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전교생에 장학증서 수여 금강대학교 성낙승 총장은 9월 20일 신입생 면학장학금(104명)과 금강 리더십 장학금(156명)을 비롯해 전교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월해중 중정 월해 스님 입적

월해중 중정 월해 스님(사진)이 8월 25일 단양구 북암(주지 동월에서 열반에 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납 107세. 월해 스님은 1900년 12월 12일 황해도 서흥군 도면 서곡리에서 태어나, 14세에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했다. 이후 안변 석왕사, 계룡산 대자암, 해인사 용담선원 등에서 참선수행에 매진했다. 스님은 평생 동안 '인간 방생'을 원으로 세우고 고아 200여 명을 돌보는 한편, 동국대 불교병원과 군법당 불사에 각각 1억 원 씩을 쾌척하기도 했다. 스님은 '거짓 없이 살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여수령 기자



명광문화원, 장애아동 돕기 작품 기증

한국불교 태고종 명광문화원 김광식 원장(사진)이 장애아동을 위한 기금으로 써 달라며 2000여 만 원에 달하는 작품을 청주 보현어린이집에 기증했다. 청주 보현어린이집은 청주 보현사(주지 원봉)가 건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50여 명의 장애아들이 생활하고 있다. 김광식 원장은 "장애를 딛고 밝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철 대전충북지사장



불교도서관 건립 발원하는 강릉 휴휴암 주지 도호 스님

“불서 읽기 운동의 작은 불씨 되길”

13년 전 경기도 일산의 한 사람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교통사고를 연이어 세 차례 당했다. 육체적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 강릉으로 오게 된 스님은 농가를 얻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2년 후 사찰을 건립하면서 '금강경 묵본 불사'를 시작했다. 해인사 대장경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열린 경관을 만들어 보겠다는 불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스님은 새벽기도를 마치고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각인 작업을 했다. 손을 베이고 근육이 마비되는 고통도 기도 일념으로 이겨나갔다.

이제 강릉 휴휴암 주지 도호스님(사진)은 또 다른 불사를 발원한다. 불교도서관 건립이다. "해인사 장경각을 둘러보면서 세계적 문화 유산이 문화적 가치만 있지 원래 목적인 책을 만들어 배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관광객들의 눈요깃감이 아니라 승속을 불문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책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다. 전국을 돌며 권 두 권 모으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6000여권이나 된다.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경전 무주상보시로 유명한 대만 재단법인 '불타교육기금회(佛陀教育基金會)'가 2000여권에 달하는 책과 600장의 CD를 기증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도서관 불사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지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책이 도착하자 뭇 뜻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6000여권의 책은 대웅전과 요사채 등지에 박스채로 쌓여있다. 마땅히 놓아둘 곳이 없기 때문이다.

“불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산골에 도서관이 왜 필요한가라며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시내에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내 도서관은 시내 도서관대로, 산골 도서관은 산골 도서관대로 의의가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도서관이 건립되면 많은 불교화자들이 이용하기를 원한다. 책은 누구라도 읽어야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여건이 되면 불교화자들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불교도서관을 이룰 때까지는 불서 읽기 운동의 작은 불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33)562-7196 남동우 기자

공생선원, 고우 스님 초청 법회 봉행



서울 공생선원(원장 무가)은 9월 16일 개원 5주년을 맞아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위원)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고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공(空)을 바로 이해하면 사는 것이 남다르게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무가 스님은 “오늘을 계기로 더욱 정진하는 공생선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복지관 독거노인에 추석 선물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국) 노인복지센터는 추석에 앞둔 9월 19일 지역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100여 곳을 방문해 송편과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정국 관장은 “명절이던 더욱 쓸쓸해지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복지관과 지역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탤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 가르침 기쁨으로 전해요”

자비명상 전국순회 마친 미가 스님



“사람 주지스님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불교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22곳을 순회하며 '자비명상' 강의를 진행한 미가 스님(한국불교문화사립단 사무국장)은 9월 19일 천안 부루나 유치원 강의를 마지막으로 전국 투어를 마쳤다.

“가는 곳마다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교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강의에서 참가자들에게 3배를 올렸다고 한다. 이에 참가자들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린 것이다. 내 이웃이 바로 부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강의의 핵심.

스님이 자비명상을 착안한 것은 우리민족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을 발견하면서부터다. 즉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면 수행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한 달에 한번 사람에 오는 불자는 국민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9%를 대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명상에 대한 수요는 넘쳐납니다. 자비명상 지도자과정들을 통해 내년 20여 곳에 자비명상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입니다.” 남동우 기자

“불교적 인성교육으로 인재 육성”

청담정보통신고 인종서 교장



“제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과제는 수업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수업에 흥미 없고 산만한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지 연구할 작정입니다. 두 번째로 연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학생지도입니다. 답답은 물론, 각 교과를 담당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나서 불교적 인성교육 심성교육을 통한 학생지도할 것입니다.”

9월 1일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제7대 교장에 취임한 인종서 교장(사진)은 이 같은 취임일성을 냈다. 신입 안중서 교장은 동국대 중비생 출신 가운데 최초로 불교종립학교 교장직을 맡은 인물. 중비생 15기로 출발해 해군 군법사를 역임하고 불교종립학교인 부산 해동고 교법사와 청담정보통신고 교법사, 교감을 거쳐 올해 9월 교장에 올랐다.

“미군기지에 인접한 학교의 여건상 방과 후 교실에서 미군 10여명이 들어가며 일주일에 2번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있다”는 안 교장은 “지나치게 비즈니스 컨벤션 영어과를 신설하는 등 생활영어, 실용

영어 중심의 교육으로 국제화에 부합하는 인재육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중국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언어 교육도 청담고가 중점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억 원을 지원 받아 최고 실비를 갖춘 어학실을 지을 정도로 영어 중국어 전문가 양성 경력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안 교장은 “실업계 특별전형 등을 통해 재학생의 90%가 대학진학에 성공했다”며 평택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진학률이 좋다는 자랑도 빼놓지 않았다.

1974년 해성 스님이 설립한 청담고는 2000년 IT 컴퓨터 전문의 청담정보통신고로 변신해 경기도에 10여개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안중서 교장은 “재학생 학부모 등 우리 청담가족 모두에게 오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 자랑스러운 학교가 되도록 전교직원과 함께 열과 성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지연 기자

“법회 꾸준히 이어나갈 것”

교육인적자원부 인봉희 이만희 회장



올해 2월 이만희 울산국립대학교건설추진단 기획팀장을 회장으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교육인적자원부 인봉희.

9월 19일 열린 정기법회 현장에서 인봉희 이만희 회장(사진)을 만났다. 이 회장은 “아직은 불자회 조직을 구축하는 단계라 활동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이미 매달 서울지역 사찰 주지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의욕을 보이고 있다. 올해 4월에는 강화 전등사와 보문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고, 7월에는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 8월에는 금강선량장 혜가 스님, 9월에는 대가사 주지 장산 스님을 초청해 법석도 열었다.

현재 인봉희 회장은 33명. 인원은 많지 않지만 교육부 내의 쟁쟁한 ‘어른’들이 동참하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차관과 인봉희 정립을 권인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광조 인적자원정책본부장 등이 고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희 회장은 “앞으로 좀 더 조직이 자리를 잡게 되면 다른 직장직능 불자회와 연합법회나, 합동 성지순례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30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국제 공인 최면치료사 자격증 취득 가능 개강안내 10월 15일 10:00~17: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패킷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매체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 및 전생상담시중 발급 -. 수료후 미국최면대학 편입학 가능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통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으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집쟁제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화법 등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상담전화 : 1544-2741